

우물

사람들이 도시로 뿔뿔이 떠난 부락
허름히 기우는 집 몇 채만
주인들 발소리를 더듬는데
공동 우물이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
우물은 입이 닫혔으나
나는 아직 소리가 남은 우물가에 머무른다

사람들은 우물을 당산나무같이 지켰을 것이다
퍼도 퍼도 넘쳐흘렀을 두레박엔
둘러서서 나누던 웃음소리와
욕심을 함께 빨아 내던 시간이
찰랑거리는 물처럼 담겨 있었으리라
하늘도 둥그렇게 담아냈을 우물
구름은 멧쩍어 냉큼 비켜났을 테고

우물은 곳곳이 사람들을 기다린다
욕심의 옷에 쓸린 삶일수록 반긴다
인내의 뚜껑을 열자
우물 속에 하늘이 떠오르고
하늘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 먹장구름이 깔 때마다
거울 보듯 들여다봤을 우물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물을 길어 올렸겠다
두레박을 끌어 올리면
별빛 같은 꿈들도 건질 것 같다

바람결에 들린 잿빛 소문 따라 떠난 삶

우물은 마을을 떠나지 않으니
사람들은 꼭 돌아오리라
샘물같이 맑은 약속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전에
우물은 다 비쳐 보이는 속을 가다듬을 것이고
사람들이 쉬리처럼 모여드는 날
우물은 안식(安息)의 물을 가득 퍼 줄 것이다